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PC(USA)는 한국전쟁 발발일과 일제강점기 해방일을 기억하며 한반도 기도와 복상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분열의 달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USA)의 한국을 위한 기도 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pcusa.org/worship-with-us/yearbook/june-25-2026>.

셋째 주: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국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주를 시작하며, 우리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고, 갈라진 것을 화해하게 하시며, 깊은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반도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분단은 오늘날도 두려움과 긴장, 불확실성을 낳으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목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를 갈라놓는 모든 담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해의 평화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을 위해,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케 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곳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3주차 기도 제목

1.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드러내며, 한민족 가운데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권력보다 평화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지혜와 겸손과 정의를 따라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3.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속적인 평화와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과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호와 힘과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합니다.
5. 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소망을 신실하게 증거하도록 기도합니다.

LET'S ALL SET A PRAYER ALARM

THURSDAYS
@12:14PM

「WHY 12:14PM?»

Let us come together in prayer, from near and far, every Thursday at 12:14 PM from June 25 to August 15. Hebrews 12:14 says, "Pursue peace with everyone, and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May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bring reconciliation, healing, and renew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broken world.

(818) 790-6708

**La Canada
PRESBYTERIAN
CHURCH**

626 Foothill Blvd, La Cañada CA